

순간 접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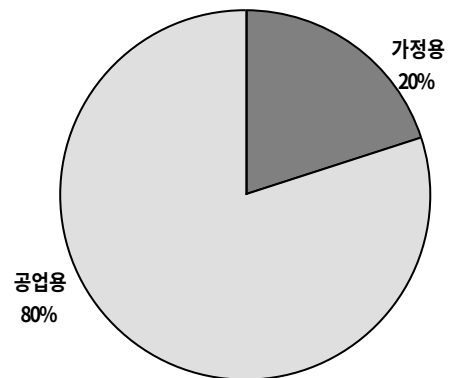
국내 순간접착제의 수요는 약 180톤 전후로 거의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용의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전체시장에서 20%선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순간접착제 시장은 자동차·전자·가전제품 등 각종 산업분야의 조립용 수요 및 의학분야의 외과수술용·치과용 등의 수요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잠재시장이 가장 큰 가정용의 수요가 몇년동안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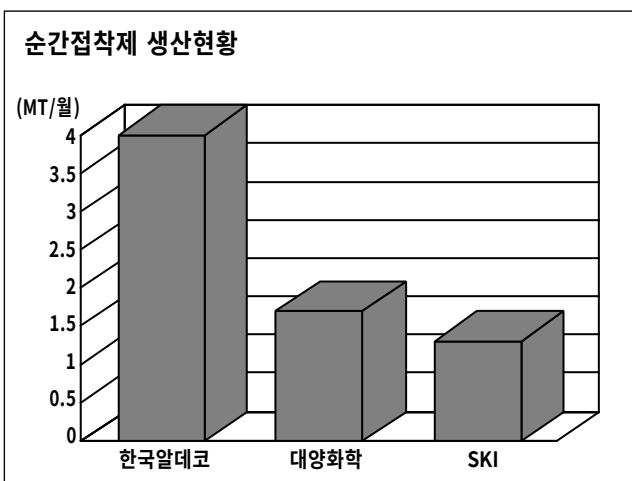
순간접착제 생산 및 수입현황(1994)			(단위 : M/T, %)		
구 분	기 업	상 품 명	생산/수입		
			연 간	M/S	시작년도
생 산	대양화학		20.4	11.0	1983
	한국알데코	알데코	42	22.6	
	SKI	SKY LOCK	15.6	8.4	1992
	소계		78	41.9	
수 입	나경상사	알데코	36	19.4	1974
	태신상사	아론알파	12	6.5	1982
	한국록타이트	록타이트	12	6.5	1975
	대흥화학	다오까	24	12.9	1990
	은우통상	세끼수이	12	6.5	1987
	한국쓰리본드	쓰리본드			1974
	세진상사	리치본드	12	6.5	1985
	벌크수입상	기타			
	소계		108	58.1	
합 계			186	100.0	

순간접착제 수요구성비(용도별)



일반가정용 수요정체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접착제 수요가 줄고 아직 선진국처럼 DIY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순간접착제의 국산 및 수입품 비중은 94년기준 생산41.9%, 수입 58.1%로 아직까지 수입품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기업은 한국알데코가 월간 3.5톤으로 국내생산 중에서 약 5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알데코의 생산점유율은 80%, 70%, 60%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요정체로 인한 시장판도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외 대양화학이 월 1.7톤으로 26%, SKI가 월 1.3톤으로 2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알데코·다오까·세끼오이·쓰리본드 등으로 일본제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간접착제의 원료인 시아노아세테이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 제품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 접착제 제조기업의 부담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아노아세테이트의 가격은 95년1월 Kg당 6500원이었으나 8월들어 8500원으로 30.7% 올랐고, 순간 접착제 생산기업은 접착제 가격을 Kg당 2만원미만으로 10년이상 유지해오다가 지난 7월들어서야 2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수입가격은 Kg당 2만50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 96 화학연감 >